



조영철 선생

조영철 선생은 1909년 12월 13일에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하평촌에서 빈둥민의 가정 장남으로 탄생하였다. 원래 길주군 사람들은 길하다고 하여서 행운과 좋고 복하다고 하나, 조선생이 탄생한 화대면 하평촌과 그 일대 - 하포, 부수대 촌 일대는 토지도 아주 척박하였지만 해변강역이 없으나 고기잡이도 잘 되지 않는 사람살기 아주 힘든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영철 선생의 부모들은 자기 호지는 한마적도 없이 열심 노작동을 하여왔다. 조선생은 어떻게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에서 알 벗고 배움터를 많이 걸으면서 향촌에서 겨우 소학교공부를 하였다. 그러나 조선생이 어린시절을 보내던 하평촌 그 주변의 경치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아름답았다. 촌에서는 항상 등해바다 파도소리가 들리는 정도를 가까이 큰바다가 있고 농촌과 바다사이에선 삼리로 넘는 모래밭에 들장미가 꽃피어 봄에는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주는 한편 여름과 가을 철에는 아주 맛 좋은 당구 열매를 주

는가하면 해변강에서 물장구치며 고기잡이는, 무래 밭으로
 달아 다니며 아이들과 같이 공작기하던 일은 조선생이 일생
 두고 자기친구들과 같이 회고하던 그림은 옛날이었다. 그러나
 조영철 선생은 비교적 행복한 사람이였다. 그것은 향촌에서
 소학교를 하갈하고 그러지 않아도 최참한 처지에서 겨우
 겨우 때 끼를 어어가며 살아가던 차 1910년 북해 일제
 의 북방정책에 응중, 3종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여 헌후
 레기에 족박기지를 걸머지고 소련 땅에 발을 돌린 북
 조 양위를 따라 15세 되던 해 즉 1924년에 원동
 연해주 백시예호 구역에 들어온후 소련 땅에서 21년간
 살면서, 자라면서, 고향의 그림들을 많이 간직하였으나 그
 후 조국에 다시 돌아갈수 있었고 조국건설에 참가할수
 있었고, 동족상잔의 혼란을 겪었다 하여도 9년간이란
 기나긴 세월 북상 직목에서 지배계 되었으나 화는말이다.
 부모를 따라 원동변강 연해주 땅에 들어선 조선생은 백
 시예호 노보끼엵스크란 적으란한 근노래지 도시에 도착
 하였다. 노지없는 조선생의 부친은 여름이면 소작농사
 를하고 겨울이면 목자 어른들이 건설하여 놓은 정리소에
 서 고용 노동을 하면서 살아갔다. 빈천한 가정은 어디
 로 가던가 고생은 막대한가진였으나 소련 땅에서는 소작물
 도 좀 낫고, 고용사리 본금도 북한에 그것에 비하면 비교적
 현하였기 때문에 남의집에서 사는 집세도 물고 영철 선생
 도 초중에서, 또 그 다음에는 고졸로 나왔을 없었고, 1931년에는
 원동 위로실로보 시(당시 한인들은 소황령이라고 불렀음)에
 가서 사전에 입학하여 1934년에 우수한 성적으로 그

사진을 필하였다.



사진은 조영철 선생과 그의 부인 유 나라 양이
1944년에 하슈켄트에서 촬영한 것이다.

사진을 졸업한 조선생은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알렉산
드르 리하일롭까 다반촌 촌 초중에 파견받아 가게 되었다.
이 다반촌에는 원흥에 유명한 비생산 국영농장이 있었던 바
그로 인하여 유명한 농촌기계 임점소가 있었고 또 그에 따라
많은 수시자의 기계 기술자들이 있었으며 한인 간부들도 많았다.
조선생은 이 다반촌 초중에 파견된 것을 아주 명예롭게 생각하
였다. 그것은 당시 조선생은 25세의 원기성 대하 리남자로써
언변도 있었고, 청년들을 지도하는 수완도 있었으면서 또 농청
년들의 신임도 많이 받았다. 조선생은 다반촌 초중 수물
선생으로 임명되자 전 다반촌 청년들은 조선생을 다반촌
지역 공산청년회 책임비서로 선거하였었다. 바로 이때에

조선생의 군공을 장막하여 수완스럽게 지르하는 기교가 심로있게 발전되어 조선 국가건설에 이바지 할것만은 아닐것으로 보인다.

조영철 선생은 1937년 한양강제어쿠시에 복모 등과 함께 까리북 공화국 약쭈빈스크 주 까리북 구역 부계촌 사이 경영농장에 실려왔다. 이곳이 산설고 물선곳, 사람이 존재하는 기별양식이 전혀다른 - 유목민 생활, 땅에서 사람등이 기쁨을 자'억고 사는것이 아니라, 목축등의 기쁨을 자'억고 사는 이곳에서 살라고 실어다 버리었던, 죽이라고 버리었던 어찌하면 산사람은 살아가고 허락이든것은 연생의 본능이 아닌가? 조영철 선생은 이곳에 와서로 초중교원일을 계속하였다. 조선생은 벌써 1934년에 처음으로 다반촌에 왔을지자기 강좌 색시될사람은 결정하였다. 다반촌에 살고 많은 처녀들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녀가 공산청년회 위원장의 복인될것은 벌써 누구든지 다 짐작하고 기다리었다. 1937년, 유가이 나레는다가 20세 되었을 때에 조영철 선생과의 결혼은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해에 전체한인들이 다같이 불행스럽게 강제이주를 당하여, 저지원 약쭈빈스크 구역에 와 떨어졌으나 실존부부는 죽은지 어는지 그들에게 라지 한가지였다. 그들의 생각에는 다만 두분의 생(인간) 뿐 뿐 되었을. 어떤 사망이건, 어떤 죽어산골이건 할것없이 생이 활활하게 살아 나갈 힘을 얻은것 같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여 조영철 양국은 한 4년간이란 긴 세월을 어촌원, 백동 무인 벌판에서 강제어쿠 벌들과 같이 살다가, 노원 언변의 피호 득일을 반대하는 전쟁이 시작되자 우르백공화국 하뉴겐트 주, 중원 구역 "노워바이 백지" (새길 형령조합회)어쿠 - 새로 왔던 조선생 가족이 약쭈빈스크를 떠나게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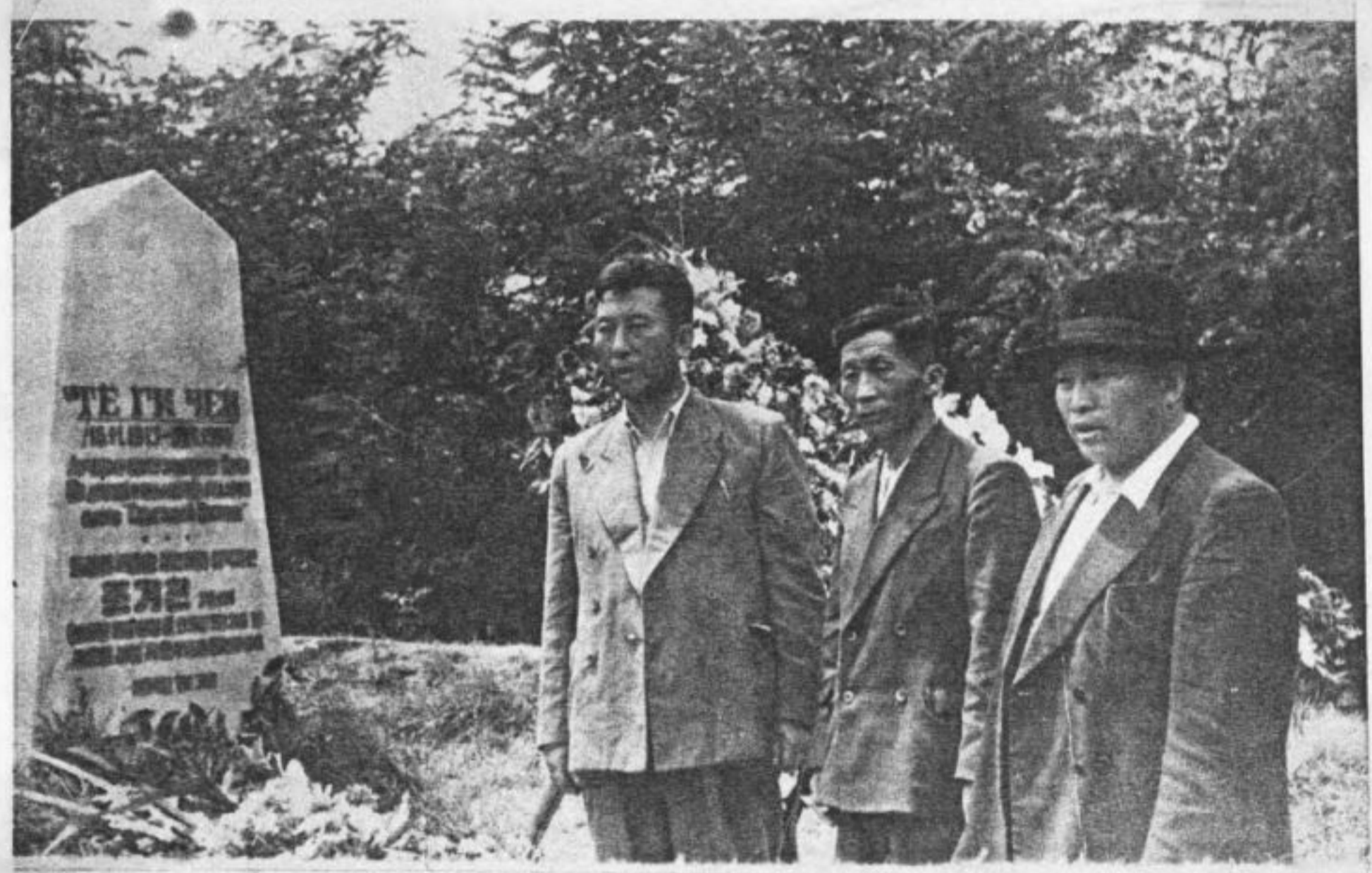
것은, 강제이주 후 4년이 지나고 보니 한인들에게는 생활조건이
 절대로 적잖지 아닌 약국빈곤극 주에서는 일생 농업에나 또
 는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산후어기때문에 전부다 그곳을
 버리고 떠나다 살아야했던것이다. 풍악시아는 기독교 복음사제
 되고 알타리 병(북칠병) 많이 돈다하여도 비농사가 원룸에
 비할바 없어 잔디였다. 풍악시아는 후지가 쇠퇴적 비옥하고, 물이
 없고 일년최고 낮은철에 모래계곡되기 때문에 농사가 아주 잘
 되는 지역이다. 본래 본 기술이 교원인 조선생은 노위 백지 협
 동조합에 와서도 계속 교원사업에 종사하였다.

1945년 4월 중순에 끝으로 기다리지 않던 군사령령을 다
 뉴겐총국 군사령령으로 복귀 받았다. 이것의 한인 제 일차 군
 대 초로 있던바 이들은 소련군과 함께 군대총역원으로 처음으로
 북한 땅을 드리게 된 한인 소련군인이었다. 조선생은 소련군
 25군단 산하 복대, 연남복대 심원들과 함께 9월에 평양
 에 입성한후 25군단 정치부에서 북한연인들을 위하여 평양
 신문사 한개를 제조하여 "조선신문"이라고 명명하고 할라히기시
 장한 신문사의 문학과정원으로 1945년 9월부터 1950년 8월



사진은 조선생이 1951년 말부터 조선연립군 후방식령부
 특별군정 대대로 개설이 되어진 평양시 한구민에서 촬영
 한 것이다.

중국 상관이 시작될때까지 일하시였다. 그 후 전쟁이 시작되자 조선병은 신봉사에서 동원되어 조선연맹군 북방사령부 특별군정 대대로 파견되어 인민군 총북방물자 공급과 보강물자 해운에 대대적 방조를 주면서 1951년 2월까지 일하시고, 인민군대가 중국 지원군과 협동작전을 하면서 다시 서울까지 출진하였을시 또 다시 권근리였다. 평양을 해방시키고 인민군대는 다시 북한은 38선 계선까지 완전히 해방시키고 또 다시 38선을 지나 서울까지 나갔을시나 12월달 전까지 못하고 서울과 함께 남선땅은 또 다시 내놓고 후퇴하여야 되였다. 이때에 북한 땅에는 폐허된 농촌경리, 다 파괴된 산업기업소, 다 파괴된 절단된 운수계통, 인민생활은 말할바없이 파산 되였다. 인민들은 농촌에서는 씨앗이 없어서 농사를 못짓고



사진은: 원릉천강에서 해난 조기원 선생은 한인 엔터리 등경에서 두 천재적 시인이였다. 선생의 작품 시열, 백두산 등은 높은 예술적수준에서 쓴 작품이였다. 그러나 조기원 선생은 오작하였다. 선생이 정서있게 서술한 시열도 문해지고, 백두산에 묘사된 김일성은 시열에 변질하였다. 조영철, 김영환 두 선생은 작가동맹부위원장라 함께 1951년 4월 31일에 유엔공중요새들의 평양시에 대한 맹폭격시 불상하게 돌아가신 조기원 선생의 묘지앞에서 후회하시고 있는 환경.

7

노동자들은 폐허된 광산, 공장 등에서 무직업으로 겨우 부업 정도에 불과한
 었다. 이때에 조영철 선생은 또 다시 봉환되어 총칭치국에서
 일하시게 되었으나 그는 조선전쟁때부터 최전방 전선에 이르기
 까지 문화리재를 담당하여주는 제 6부 부장으로 임명되었다. 원년
 의 일반적 생활이 파산되자 원년군대의 전후대사는 완전히 좌절되
 여 방어선에 넘어가자 원년군대내 각 구별대대에는 각종 전염병이
 감렵 되어 군인들은 지프스, 열병 (20 호 병이라고도 하였음)에 걸려
 군대내 군무사들이 전후사기는 고사하고, 전후 능력이 완전히 유해되
 여 가는 형편이었다. 어화정에서의 군무사들특히서 정치 선동선전
 사업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었다. 조선전쟁 환경은 물론이 고찰하시면
 조선인군 총칭치국장 김재복 대장에게 알려하시며 소련에 대동
 당을 파견하여, 소련으로부터 대량적으로 라디오, 각종 책자, 방송기
 구기기 확성기 등을 구입하여 최전선까지 보내주어 군무사들의
 사기를 좀 높여주었다.



사진은 1954년에 유나레스다 복원과 같이 촬영한 조영철
 선생의 가족 사진이다. 사진에는 장남-왈렌진, 딸녀 벨라, 차녀 로자.

1953년 4월 10일에 조영철 선생은 또 다시 농한
 장을 받고, 이번에는 원안군대에게 제대되어 사회로 나가
 지 되었으나, 기다리지 않던 영전이었다. 전쟁 초기
 복귀 시작하여 전사조건하에서 원안군대내 후방부장나 업무 책
 임지로 보장한 조영철 선생은 원세훈 대대적 범위에서
 보장사업에 이력있는 능수였다. 이세훈에게서 보장사업
 은 품 범위는 좀더하여도 아무 책임적이고 중대한 일이라서, 국
 내의 모든 산업이 타락된 조건하에서 주로 외국과 연락이
 가장 중대하였다. 더구나 전쟁 기간에 원안군의 건강은
 더 말할나 없이 허약하게 되었으며, 1년 분마다 반복
 되는 각종 질병병은 눈알자염, 지프신염, 말타리염 하등
 많은 병들이 연달아 감를군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보건성
 사업은 아주 중대하였다. 조선성은 공화국 보건성복상
 으로 임명받아 전근 되었다. 조선성은 전쟁후 그 복잡
 하고 골란한 형편에서 간부들이 전혀 부족되었는데, 최
 급사업으로 조직하자면 약이없고, 예방대책을 취하자하
 여도 약도 없거나와 물자가 전혀없는데, 딱딱한 건물한
 채도 없는 조건하에서도 새직무에 들어서서 백배지능
 줄보로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사업들을 조직하였으려
 그 외에 소련, 체코, 헝가리아 중국등에 돌아 다니며
 약재등을 권유어 드려 불굴의 태세로 일하시었다. 조선
 성이 7년간 복상으로 일하는 동안 많은 간부들도 양성하였
 으며 의료 건물은 배 농촌, 배 혈류 조합에 진로소
 화화식은 다 짚어 놓고 군소재지등에는 종합진료소와
 병원등까지 건설하여 놓았다. 조영철 선생은 본태 복한
 길로 태생이여서 죽어도 북한에서 늙어 죽으려고 각오하고
 살았다.

그러나 벌써 수련소에 귀속되는 사상검증은 무대한 간부들
 을 청산하여 후속 또는 유형지로 보내는 한편 소련 출신 간부
 들은 불과 십여 명만 남고 청산되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조선생은 애를 쓰고 일하였으나 내막적으로 북조선 정책을
 꼭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북한 국적에 완전히 넘어가지 않
 고 어중국적으로 일하다가 북한 로동당 지도부는 조
 선생을 신임할 수 없었다. 때문에 무차 국적을 원기라는
 권고가 있었으나 그에 복종하지 않은 관계로 일차리에서
 내 보내니까 할 수 없어 소련에 귀국하게 되었다. 조선생은
 1949년에 한 생애이며 1954년에 소련에 입국 하였으며
 1945년에 다시 북한에 가서 15년간 식염하시다가
 1960년 2월에 하뉴켄트시에 돌아와서 1980년
 까지 계시면서 약 10년간 원주되어 일하고 있던 국영동
 장도에 돌아다니며 지도사업을 하시다가 1970년 2월
 6년 근생활을 하시었다. 조영철 선생은 아들 하나와
 딸 2명은 다 장가들여 출가했는데 북한 유네스코
 와 끝까지 계시다가 1980년 3월 25일에 별세하였다.



사진은 조선생 가족이 평양을 이별하고 소련에 귀환하는
 장면. 평양 역전에서 조선생 양주를 김영환 선생이
 동행하고 있다.